



삼학도 사일로 발파 철거 1956년 들어선 목포 삼학도 내 한국제분 목포공장 철거작업이 1일 오후 사일로(가축사료 저장 창고) 14기 가운데 2기를 발파하면서 본격화했다. 나머지 12기는 오는 10일 발파가 재개되며, 이 부지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무더위와의 전쟁' 광주 소방본부 상황실 가보니

“벌집 제거해달라” “도로 물뿌려달라” 여기저기 ‘폭염 SOS’ 폭주

“아파트에 벌이 날아 들어 무서워요. 빨리 와 주세요. 가계요 도로가 녹을 지경이에요. 물을 뿌려주세요. 벌집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 소방장은 곤장 장전 소리를 통해 남아 있는 생활민원 조반을 확인했다.

이날 걸려온 신고 전화 대부분이 벌집 제거 신고였다. 6~7월부터 이어진 벌집 신고가 잠잠하지 않자, 벌집특발팀까지 꾸려 오전 7시부터 현장에 방문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신고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땀방울도 도로가 녹을 것 같으며 살수차 동원을 조르는 경우도 있다.

확인에 현장에 출동 조치 시켰다. 최근 폭염 때문에 환자들의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과 온열환자를 대비해 일부 구급차에는 냉방조기 등을 갖춰놓기도 했다. 골장 옆에서는 남구에서 엘리베이터 간헐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화순 38도 광주·전남 을 최고

8월 첫 날인 1일 광주·전남 지역에 ‘살인 폭염’이 계속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화순이 38도를 정점으로 나주 37.7도, 구례 37.6도, 순천 37도, 함평 36.9도 등 전남 12개 시군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올해 광주·전남 1만5천명 전문대 수시 모집

올해 치러지는 2013학년도 전문대학 수시전형에서는 전국 138개 전문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15곳을 비롯한 137개교가 총 19만50783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폭염 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7명의 폭염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화순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고, 지난달 29일 해남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탈진해 사망했다.

16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 오는 12월 3일까지 전형을 마치고 12월 8일 까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주요대학 인기학과인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한다.

오늘 날씨, 비 소식,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weather forecast section with maps and temperature data.

다문화 청소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초·중·고 재학생 4135명, 2배 가까이 늘어...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광주·전남지역에서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다문화 청소년'이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